

2023년 1월 15일

새롭게 출발하는 달
믿음성장과 신앙생활 성숙 주간

건강한 믿음(신앙)의 성장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37:9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 / 교우)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구은강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누가복음 16:11-13 “지혜로운 청지기”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찬양 /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단의 기도)
헌신과 열매 (봉헌 / 나눔)	봉 헌 / 유덕하 집사, 최선운 집사 *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통일찬송가 348장)
삶과 세상으로	* 찬 송 / 620장 - 여기에 모인 우리 *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목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 찬양예배

찬양과 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베드로전서 1:13-25

예수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친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월 “새롭게 출발하는 달”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 2023년 주제 말씀 :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표어 : 믿음이 성장하는 해
- 성장/성숙주간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믿음의 성장과 신앙생활의 성숙을 추구합니다.
- 제직회/공동 의회 점심 친교 후 2023년 예산 심의를 위한 첫 제직회와
예결산 심의를 위한 정기 공동의회를 가집니다.
- 2023 사역 책임을 다하고 함께 일 합시다. 풍성한 치유와 회복,
은혜와 복을 누립시다.
- Oikos 모임/친교 오늘 저녁 2023년 첫 소그룹 사역을 가집니다.
위로, 나눔, 섬김을 실천하는 기회입니다
- 섬김 리더 모임 제직회/공동의회 후 모입니다.
- 성혼선언 29일 주일에는 다음달에 결혼하는 김훈태/김신실 집사님의 자녀
김영은/Nathan Plein이 성혼선언을 위해 교회를 방문합니다.
- 성경공부와 기도모임 말씀과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모두 참여합시다.
(1) 주일 오전 11:00 /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 - 장소: 교회
(2) 주일 저녁 8:00 / 인물 성경공부 - 장소: 교회
(3) 화요일 오전 10:00 / 교회 성장 - 장소: GS Academy

▶ 1월의 사역

- Oikos 친교(15)
- 제직/공동 의회(15)
- 섬김리더 모임(15)
- 성장/성숙 주간(15-21)
- 소금/빛 주간(22-28)
- 선교 주일(29)
- 선교 주간(29-2/4)



- 1월 생일축하 -

말씀 개요

지혜로운 청지기 / 누가복음 16:11-13

어떤 부자와 악한 청지기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허비하는 청지기를 해고하려 한다.

해고 직전의 청지기는 재빠르게 자신의 생존을 준비한다.

주인에게 큰 빛을 진 사람들의 빛을 탕감한다.

예수님은 이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신다.

교훈

-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알면서 어떻게 준비하는가?
- 청지기로서 충성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가?
-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말씀 요약

지혜로운 청지기 / 누가복음 16:11-13

어떤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던 청지기는 게으르고 악했다.

주인이 이 청지기를 해고하려 하자, 그 악한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길을 찾는다. 주인에게 빛진 사람들의 빛을 아주 많이 탕감해준다.

청지기에게 큰 은혜를 빛진 사람들은 그 청지기를 대우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즉, 이 청지기는 자신의 앞가림을 위해 약삭 빠르게 수완을 발휘했다.

이 비유를 마친 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 때문이다. 악한 청지기는 직면한 해고, 즉 종말을 준비했다. 살아남기 위해, 즉 생존을 위해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애를 썼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종말, 죽음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그 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예수께 칭찬받을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악하고 불의한 청지기도 앞날을 준비하는데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다.

마지막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자세를 배우자. 정신을 차려야 할 때 정신을 차리고 살길을 찾는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는 마지막 예비자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며 충성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는 살아가는 지혜로운 모습이다. 작은 일에 충성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 에레미야 29장 11절 -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 답이 너무 많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답을 얻는다. 자신의 능력을 답으로 삼는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답을 대신하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오답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진리이다.

때로 돈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인기 많은 사람이 인기 때문에, 인맥을 중요시하는 자가 사람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있다. 답이라 여겼던 것이 오답이 되었기 때문이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도’ 답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 이런 기도는 사실 하나님을 답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이 기도는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기도이다.

많은 사람이 ‘기도나 해볼까? 기도도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기도를 포기해버린다. 바빠서가 아니다. 게을러서도 아니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간절함이 사라진 것은 하나님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가 절박하지 않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 외에 기댈 구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의 금요철야 예배에는 강력한 기쁨 부으심이 있다. 가정에서 포기한 사람,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한 사람, 사업하다가 부도난 사람,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오는 곳이기에 금요철야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 남은 사람들의 예배이다.

이 예배에 달려오는 성도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가장 많이 외치는 소리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라는 말이었다. 하나님만 답으로 남은 사람들의 기도는 다르다. 더러운 바닥도 상관하지 않고 무릎을 꿇는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의식하지 않는다.

“주여~~!”라고 창자가 끊어질 만큼 간절하고 처절하게 하나님을 부른다.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다. 시간도 보지 않는다. 밤 깊도록 새벽이 이르도록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유는 딱 하나이다.

하나님만 답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요철야 예배에는 지금도 수많은 간증이 쏟아진다. 요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라. 하나님이 답이라는 확신이 있는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한 명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는가. 내가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다. 그때 하나님만이 답이 되고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며 응답이 시작된다.

때로는 하나님이 갈멜산에 나 혼자만 남기실 때가 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을 답으로 남기실 때가 있다. 건강 앞에 손을 들게 될 때가 있고,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갈 때가 있다. 내게 있는 능력이 아무짝에도 쓸모 없도록 비참해질 때가 있고, 재정적으로 빈털터리가 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때는 위기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답이 되시는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답이 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늘 문이 열리는 간절함의 기도를 시작하라.

이현우, 『기도를 멈추지 말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황폐화 됩니까?
왜 침체해 집니까?
왜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입니까?
물론 그 이유도 있겠쇼.
그러나 기도보다 더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순종을 안 하기 때문임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 육한음 -



기도제목

1. 2023년 모든 교우가 성경읽기와 성경공부에 열심을 내도록
2. 2023년 교회 사역이 사랑과 헌신으로 열매를 맺도록
3. 다시 시작하는 Oikos 모임이 활성화되고 나눔과 회복의 통로가 되기를
4.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혜영)와 그 가정을 위해
5.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로 진학할 자녀들(강현, 민성, 준하)의 학업과 신앙성장을 위해
6. 장성한 자녀들의 직장 생활과 타지에서의 안전, 그리고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
7. Youth 사역자 Jacob 전도사님과 New Life Church와의 joint ministry를 위해
8. 각 가정의 화목과 건강,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9.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로 고통받는 가정과 경제적 회복을 위해
10. 다음 달 결혼하는 김영은양의 결혼준비와 그 가정을 위해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 1월 8일 / 김훈태 집사
1월 15일 / 구은강 집사
1월 22일 / 최내권 집사
1월 29일 / 최선운 집사

주일헌금위원 - 1월 8일 & 15일 / 최선운 집사
유덕하 집사
1월 22일 & 29일 / 오정은 집사
박진성 집사

주일친교봉사 - 1월 8일 / 교회
1월 15일 /
1월 22일 /
1월 29일 / 김훈태-김신실 집사 가정

주일안내위원 - 1월 / 최내권 집사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SUNDAY SCHOOL 김태영 전도사
(JACOB KIM)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30 AM

주일성경공부 / SUNDAY BIBLE STUDIES : SUNDAY 11:0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7:3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8:0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TUESDAY 10:00 A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